

# 교회소식

-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한 주간 저녁기도회가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점검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행로에 지친 인생 믿음으로 경주하자  
 시간: 오후 7시 30분

	성경	제목	기도자
월	누가복음 24:22-27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김자경
화	신명기 29:2-9	내 믿음은 둔하지 않은가	박제란
수	예레미야 29:11-13	내 믿음을 보여라	이기중
목	요한복음 5:39-43	내 믿음의 내적인 증거	박후임
금	민수기 14:10-11	불신앙의 옷을 버려라	이애란

-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묵상' 이번 주 범위는 여호수아 24장 - 사사기 20장까지입니다.
-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성찬위원: 시무장로, 안수집사).
- 오는 5월 1일 주일은 야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별로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교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의자나 책상, 테이블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오늘 식사 교제 빵은 박병민 장로(이기중 권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A p r i l

## 교회사역일지

4월 3일(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10일(주일) 종려주일  
 4월 17일(주일) 부활주일  
 4월 18~22일 한 주간 저녁기도회  
 4월 24일(주일) 성찬주일

## 기도순서

4월 24일 (주일) 손조훈 집사  
 4월 27일 (수) 김민경 집사  
 5월 1일 (주일) 장경희 집사  
 5월 4일 (수) 김영아 집사

##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박영선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St Luke's Church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 부활주일

24권 16호 2022.04.17

주 일 예 배 오후 1시 0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찬양단

예배로부름 베드로전서 1:3-4 인도자

❖찬 송 40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165장 다함께

대표기도 김병진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24:1-12 인도자

부활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그사랑 김민아, 김성옥

찬양대찬양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대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부활신앙의 의미 이태한목사

찬 송 17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답송 411장(1,3절) 다함께

❖축 도 이태한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00 pm  
 청년예배 2:45 pm  
 유아부 1:00 pm  
 아동부 1:00 pm  
 청소년부 1:00 pm  
 수요일예배 7:30 pm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한 주간 저녁 기도회 기도 제목

## 월 - 찬송 540

1.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2.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과 행동이 하나 됨을 보이도록
3.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거룩함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4.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 화 - 찬송 542

1. 영안이 열려 예민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믿음을 가지도록
2.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섞여 있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는 결단이 있도록
3. St Luke's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지역 사회에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4. 예수 중심 성경 읽기가 잘 정착되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 수 - 찬송 544

1.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2. 오미크론의 어려움을 신앙생활의 진보로 삼는 지혜가 있도록
3. 교회 학교에 은총을 더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4.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 목 - 찬송 545

1. 내적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확신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2. 인생의 여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3. 교회의 모든 각 기관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도록
4.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받음의 감사를 회복하도록

## 금 - 찬송 546

1. 보이고 잡히는 것만 추구하는 불신앙의 옷을 벗어 버리도록
2.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안전과 성령충만함이 있도록
3. 불신과 사악함, 전쟁이 사라지고 신뢰와 선함, 평화가 있는 세상이 되도록
4. 가족간의 어려움과 관계의 불편함이 회복되어 살림의 삶이 되도록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찬양  
기성경  
설교  
찬  
합심기도/주기도

수요 찬양단  
이기중 권사  
예레미야 29:11-13  
내 믿음을 보여라  
이태한 목사  
544장  
다같이

# 나눔란

## 2022년 4월 10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기복음 23:32-38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칠언(架上七言) 중 첫 번째 말씀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 죄인 괴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는 극악한 범죄자를 위한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33). 우리의 죄가 그만큼 엄청난 행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만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며 신음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며 십자가의 뜻이 된 내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 고초를 겪으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깨닫는 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35). 또 조롱했을 뿐 아니라 관리들과 군인들은 비웃었습니다(35-37). 그들은 십자가가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고통뿐 아니라 극한의 외로움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 민족의 왕으로 선포되신 십자가 위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 사형의 죄목을 반드시 써야 했지만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38). 이 패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당시 세계 공용어이던 로마어와 헬리어로도 기록되었습니다(요 19:20).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을 정도로 상하고 지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와중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한 자들은 그 몸에 못을 박고 짐을 뺄으며 조롱하고 창으로 찌른 자들뿐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과 죄와 허물로 더러운 나까지 포함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의 악행이 아니라 용서이신 것을 깨닫고 언제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사 53:6) 영접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만 열렬히 환영하며(요 12:17-18)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좇는다면 스스로에게 배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허상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듯 보이나 주님으로 포장된 자기라는 우상을 믿는 것은 아닌가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며(히 9:12)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망치 소리를 듣는 자의 삶입니다. 용서는 도덕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 십자가 고난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죄 사함 받은 감격으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